

어린이 책꽂이

▲받아쓰기 어려운말=학습만화로 재미있게 배우는 '아 다르다' 다른 우리말 시리즈 '소리 내어 읽을 때와 글로 쓸 때가 다른 우리말의 규칙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내동생 아닐래=아이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공룡의 이야기를 통해 형제간의 우애를 다루고 있다. 종생대에 태어난 너룡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았던 주위 온 동생 아닐래의 이야기가 생동감있게 그려져 있다.

▲뚜레 벤치에 앉아 구경하다=현실에서 시작해 상상の世界로 뻗어나가는 3세 이상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춘 '뚜레이야기' 그래픽 시리즈, 주인공 뚜레는 벤치를 만들어 강아지 헬로와 함께 세상을 구경한다.

▲놀라운 땅속 세상=우리 발 밑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우리가 미처 몰랐던 땅속 세상의 신비한 이야기를 플래시 기능(날개)을 들춰서 속을 들여다 보는 장치)을 활용해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선사한다.

▲대왕세종-세종대왕과 그의 과학

자들(제4·5권) =세종시대의 과학과 역사를 다룬 과학학습만화 시리즈. 4권에서는 세종대왕이 추진한 천문학 프로젝트를, 5권에서는 세상을 떠나기 전 세종대왕의 마지막 모습과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조선 전기 왕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과학동아북스> 각 9천800원

〈대왕세종〉 각 4천500원

〈뚜레 벤치에 앉아 구경하다〉 각 3천500원

〈받아쓰기 어려운 말〉 각 2천500원

〈내동생 아닐래〉 각 2천500원

스크린을 통해 본 한국 사회 부조리



이 영화를 보라 고미술 저음

영화는 상품인 동시에 철학적이 의미를 담고 있는 '문화'이다. 열하일기 등 고전을 유쾌하게 재해석해 관심을 모았던 고전판본가 고미술씨가 펴낸 '이 영화를 보라'는 사회 부조리를 담고 있는 영화를 소개하는 책이다. 한국 사회의 변화에 걸쳐진 문화와 영화와 관련지어 이야기하고 있다.

영화는 상품인 동시에 철학적이 의미를 담고 있는 '문화'이다. 열하일기 등 고전을 유쾌하게 재해석해 관심을 모았던 고전판본가 고미술씨가 펴낸 '이 영화를 보라'는 사회 부조리를 담고 있는 영화를 소개하는 책이다. 한국 사회의 변화에 걸쳐진 문화와 영화와 관련지어 이야기하고 있다.



영화 '괴물'은 위생권력에 맞선 한 가족의 사투로 소개된다. 사진은 영화에서 앙금선수 배역을 맡은 배우니가 괴물을 향해 화살을 쏘는 장면.

고대 이집트 미스터리와 공금증 해소

나폴레옹의 피라미드 디트리히 저음

고대 이집트의 미스터리를 박진감 있게 풀어내는 역사 추리 소설이 나왔다. 역사학자이자 필리체상을 수상한 저널리스트, 유명 픽션작가로 이름 높은 윌리엄 디트리히가 펴낸 '나폴레옹의 피라미드'는 18세기 말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을 배경으로 고대 이집트로부터 전해져온 신화와 수수께끼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유쾌한 모험담을 그렸다.



〈예담> 1만3천원 / 김민기 저 mekim@kwangju.co.kr

황금에 대한 인간의 집착 풀어내

부의 역사 권홍우 저음

경제전문기자 권홍우가 펴낸 '부의 역사'는 황금(돈)에 대한 인간의 집착을 보여주는 책이다. 인간의 열정과 광기가 경제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내 인생 한권의 책

소르 헤이머달 '콘티카'

고등학교 세계지리시간이었다. 당시 지리시간은 우리 속의 동물처럼 틀 속에 갇혀 있던 내게 새로운 세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탈출구인 동시에 자유로운 사색의 공간이었다.

지금도 그렇듯이 세계지도를 펼쳐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는 것은 어쩌면 그때부터 시작된 설레임이라! 그리고 훌쩍 훌쩍 거역되는 페루 서쪽 해안에서 적도를 향해 흐르는 해류는 고대 문화의 이동 루트와도 관련된다는 것도 이때 알 수 있었다.

실험 고고학은 모험이다



저자 소르 헤이머달(THOR HEYERDAHL: 1913~2002). 그는 노르웨이 출신으로 미치 세계에 대한 탐험과 인류학적인 분야를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는 주로 폴리네시아를 무대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현재의 민족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신뢰하던 이론을 뒤엎게 되었다.

예컨대 폴리네시아인은 동남아시아에서 아니라 남아메리카에서 이동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는 양 지역에서의 현지조사를 통해 콘티카라는 인물이 남아메리카에서 페루를 타고 건너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1947년 그는 선사시대에서부터 내려오는 남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방식과 똑같이 발사체를 이용한 뗏목을 만들고, 6인의 승무원과 함께 페루를 출발, 폴리네시아의 투아모투 제도(통칭)를 향해 떠났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콘티카호이다. 그들은 훌쩍 훌쩍 페루를 타고 101일의 항해를 거쳐 폴리네시아의 바로이아섬에 도착하게 된다.



조현중 <국립광주박물관장>

대인동산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고흥신도시공인중개사
(061)833-6669
한 010-8004-6669
고흥, 녹동터미널 옆 (상가부지) 300평, 평당 70만원

첨단일계공인중개사
(062)72-4555
(첨단지구 부영A LC빌딩 사거리)
★급매★
●첨단 인근 비아동 일반주택

법원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옆)
062-226-0047 ~ 8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법원경매 전문회사
- 불 앞서는 사람들 -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입찰장 옆) 상담전화: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주)옥션코리아 무료상담

국민공인중개사
한 011-635-7939, 010-3114-6103
(두리동 무등도서관사거리 농협앞편 2층)
건물
●1997년 11월 30일 준공